

<서평>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와 『호모 데우스』의 인간이해에 대한 해석학적 진단- 호모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 호모 렐리기오수스”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저, 조현욱 옮김, 서울: 김영사, 2015
『호모 데우스』, 유발 하라리 저, 김명주 옮김, 서울: 김영사, 2017.

왕대일¹⁾

1. 『사피엔스』와 『호모 데우스』

이 두 책은 방대하다. 박학하다. 인류역사라는 대서사를 진화론의 관점에서 종횡무진 써내려간 “문명 항해기”다. 각 권의 분량은, 우리말 번역본에서, 참고문헌과 색인까지 합쳐 『사피엔스』는 636쪽, 『호모 데우스』는 619쪽에 이른다. 글의 본문만 1000쪽이 넘는다(『사피엔스』는 586쪽, 『호모 데우스』는 544쪽). 이 방대한 분량 속에 인류의 과거·현재·미래를 심도 있게 탐구한다. 그런데 그 탐구방식이 자못 도발적이다. 인류의 역사라는 주제를 정치, 경제, 사회, 생물, 문화, 역사, 예술, 종교 등 인류가 지금까지 구축해 온 삶의 환경에서 통(通)째로 다룬다. 생명공학,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생물학, 고고학, 인류학, 건축학, 산업공학, 수학, 물리학, 통계학, 사회과학, 문학,

1)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구약학

성서학, 종교학 등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면서 짜릿하리만큼 사유의 경계를 깨부순 통섭(通攝)의 논리를 전개해 나간다. 한 저자의 글에서 이만큼 다중(多重)적이고도 다면적이며 다차원적인 글쓰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이 책의 비중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와 『호모 데우스』, 이 두 책은 각각 초대형 베스트셀러다. 두 권 각각 그 판매량이 전 세계 50개국에서 수백만 권에 이른다고 하니 그 글의 반

향이 온 지구촌을 달구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책은, 이른바 “빅 히스토리”(Big History)에 속하는 글이지만,¹⁾ 해석학적인 관점에서 따진다면, 묵시록에 가깝다. 인류의 종말을 예고하기 때문이다. 이 책을 손에 쥔 독자들은 “인간이 신을 발명할 때 역사는 시작되었고, 인간이 신이 될 때 역사는 끝날 것이다”(『사피엔스』), “2100년이면 현생인류가 사라질 것이다”(『사피엔스』), “호모 데우스, 이것이 인류 진화의 다음 단계다”(『호모 데우스』)라는,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저자의 예견을 책의 앞뒤표지에서 어렵지 않게 간파한다. 이 도발적인 거대 담론 앞에서 독자들은 숨을 죽인 채 그의 사상에 빨려드는(?) 지적 모험을 감행하게 된다.

『사피엔스』와 『호모 데우스』가 묵시록의 성격을 띤다고 해도 이 책들은 기존의 묵시록과는 다르다. 기존의 묵시록이 종교사적인 천년왕국운동이나, 기후변화나 생태계의 파괴가 초래할 대파국, 또는 지구와 행성의 충돌 등이 불러올 대파멸 이후의 그 날을 그렸다면, 『사피엔스』와 『호모 데우스』

1) “빅 히스토리”란 “경험적 증거들과 학제적 방법들을 적극 활용하여 우주와 지구와 생명과 인류의 역사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거대담론이다(<http://www.ibhnet.org>). 빅뱅에서부터 시작하여 현재와 미래에 이르는 역사기술을 물리학, 천문학, 지질학, 생물학, 인문학 등을 통섭해서 살피는 학제 간 연구다. 빅 히스토리란 용어는 호주 매쿼리대 사학과 교수 데이비드 크리스찬(David Christian)이 1989년에 처음 사용하였다. 2011년 3월에는 인류의 지취를 우주사, 지구사(자연사), 고고학, 역사로 나누어서 가르치자는 빅히스토리 프로젝트를 빌 게이츠(Bill Gates)와 데이비드 크리스찬이 공동 발기하였다. 유발 하라리에 앞서 재래드 다이아몬드(Jared Diamond)가 출간한 『총, 균, 쇠』(원제는 *Guns, Germs, and Steel*, 우리말 번역은 2017년 문학사상 간행)도 이런 빅 히스토리에 속하는 글이다.

는 진화론의 관점에서 인류역사의 내일을 조망한다. 생명공학과 컴퓨터 과학이 주도할 21세기의 미래가 디스토피아가 될는지, 유토피아가 될는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사피엔스』와 『호모 데우스』는 21세기의 새 인류가 과학의 힘으로 구축할 “용감한 신세계”(The Brave New World)에서는 오늘날의 인류(호모 사피엔스)가 설 자리는 없다는 경고를 부각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사피엔스』와 『호모 데우스』, 이 두 책은 그 영어번역판·영어판 초판이 각각 2014년과 2016년에, 우리말 번역판은 각각 2015년과 2017년에 출간되었다. 이 두 책은 서로 연이어서 읽어야 된다. 『사피엔스』를 먼저, 『호모 데우스』를 나중에. 두 책 모두 인류가 헤쳐 온 과거·현재·미래를 다루지만, 『사피엔스』가 왜 “사피엔스”라는 종(種)이 지구역사를 관장하는 동물(!)이 되었는지를 밝히는데 치중한다면, 『호모 데우스』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토대로 “사피엔스”라는 인류가 구현하게 될 21세기 미래를 조망하는데 중점을 둔다. 『사피엔스』의 부제가 “인류의 역사 개관”(A Brief History of Humankind)이고, 『호모 데우스』의 부제가 “미래의 역사 개관”(A Brief History of Tomorrow)이란 점도 이런 차이를 드러내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사피엔스』는 『호모 데우스』를 독해하는 작업에 요청되는 기반을 조성한다.

2. 이스라엘인 유발 하라리(Yuval Noah Harari)

『사피엔스』와 『호모 데우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이스라엘인이다. 1976년에 이스라엘 하이파(Haifa)에서 태어나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중세 전쟁사로 박사학위(2002년)를 받은 뒤 지금은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에서 역사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의 모국어는 히브리어이고(그의 홈페이지는 히브리어,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스웨덴어로 운영되고 있다), 그의 이름에는 “노아”라는 미들네임(middle name)이 들어 있다. 또 세계가 유발 하라리에게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던 『사피엔스』는 원래 히브리

어로 이스라엘에서 출간되었었다(Or Yehuda의 Dvir 출판사 2011년 간행).

『사피엔스』와 『호모 데우스』의 저자가 영미·구미의 지성인이 아닌 이스라엘인이라는 점은 우리 주목을 끈다. 그의 글에서 세계사의 문제에 대한 비서구적 처방을 발견하거나, 아니면 오늘날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이 겪는 정치·경제·사회·인종·종교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볼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나아가 오늘날의 인류(호모 사피엔스)가 종언(終焉)을 고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인류(호모 데우스)가 출현한다는 그의 예지(叡智)에서 어찌면 그 옛날 영지주의로부터 교회를 지키고자 했던 이레나우스(Irenaeus, 주후 130-200년 경)의 영성 같은 것이 도리어 숨어 있을 수 있다고 추측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유발 하라리의 글에서 이스라엘적인, 아니 유대적인 정서를 기대해 보고자 했었다는 소리다. 하지만 아쉽게도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와 『호모 데우스』는, 표면적으로는, 그런 우리 기대와 거리가 멀다.

『사피엔스』와 『호모 데우스』에 반영된 유발 하라리는 비유대교적인 이스라엘인이다. 그가 지금 전 세계 각국의 이런 저런 모임에서 행하는 강연의 주제는 인간이다. “인류에게 미래는 있는가”와 같은 주제의 거대담론을 전하고 있다. 2016년에 우리나라를 찾았을 때에도 경희대에서 “문명전환과 아시아의 미래”란 주제로 강연하였었다.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와 『호모 데우스』이전에 이미 주목할 만한 저서 세 권을 출간하였다. 세 책 모두 전쟁 이야기를 다루었다. 중세기에 벌어졌었던 전쟁의 자취에서 문화사적으로 추적하였다. 박사학위 이후인 2004년에는 *Renaissance Military Memoirs: War, History and Identity, 1450-1600*을, 2007년에는 *Special Operations in the Age of Chivalry, 1100-1550*을, 2008년에는 *The Ultimate Experience: Battlefield Revelations and the Making of Modern War Culture, 1450-2000*을 출간하면서 역사학 공부의 과거와의 대화가 아닌 오늘의 문제·과제를 파헤치는 인문학적 도구임을 보여주었다. 오늘날 그의 역사학 강의는 중세기 역사에 머물지 않는다.

전쟁 역사로 그치지 않는다. 유발 하라리는 자기 자신을 그의 홈페이지(www.ynharari.com)에서 이렇게 소개한다.

그의 본래 전공은 세계사, 중세기 역사, 전쟁 역사다. 그가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는 역사의학의 거대담론이다. 즉 역사와 생물학의 관계는 무엇인지, 호모 사피엔스가 다른 동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무엇인지, 역사에 정의는 존재하는지, 역사에 어떤 방향이 있는지, 역사가 전개되면서 사람들은 더 행복해졌는지 등을 거시적 안목에서 탐구하고 있다.²⁾

유발 하라리에게 역사는 인간의 자취다. 인간이라는 동물이 어떻게 해서 전 지구촌을 장악한 생물학적 종(種)이 될 수 있었는지를 추적한다. 그가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아니다. 『사피엔스』와 『호모 데우스』는 종교와 관련된 토론이나 자료들을 그 책에서 전반적으로 풍부하게 다룬다. 오늘날 반(反)기독교적인 서적들이 성경말씀에 대한 문자적 인용에 머물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유발 하라리는 종교에 대해서, 특히 구약성경본문에 대해서, 해석학적으로, 그러면서도 종교사적으로, 인용하거나 거론한다. 문제는 그에게 있어서 종교는, 기독교나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불교 등은, 호모 사피엔스가 동물과는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는 결정적 증거 가운데 하나로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유발 하라리에게 종교는 돈, 제국과 더불어 호모 사피엔스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매개체다(『사피엔스』234-347쪽). 그 까닭에 사피엔스가 지구상에서 현존하는 인류 종(種)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오늘날 종교는 흔히 차별과 의견충돌과 분열의 근원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실상 종교는 돈과 제국 다음으로 강력하게 인류를 통일시키는 매개체다. 모든 사회질서와 위계는 상상의 산물이기 때문에 모두 취약하게 마련이다. 사회가 크면 클수록 더욱 그렇다. 종교가 역사에서 맡은 핵심적 역할은 늘 이처럼 취약한 구조에 초월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있었다(『사피엔스』, 298쪽).

2) www.ynharari.com의 초기 화면에 실린 그의 글을 우리말로 옮겨놓았다.

유발 하라리는 종교를 “초인적 질서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인간의 규범과 가치체계”라고 정의한다(『사피엔스』, 298쪽). “초인적 질서”라는, “상상력을 동원하여 만든 허구적 실체”가 사피엔스가 두 발을 딛고 있는 현실에 “초월적 정당성”을 부여하였다는 것이다. 거기에서 호모 사피엔스는 다른 동물들과 구분 될 수 있었다.

유발 하라리에게 “보편적 종교”는 “보편적 제국과 보편적 화폐의 등장과 함께 인류의 통일에 크게 기여한”(『사피엔스』, 300쪽), 인류가 상상력으로 빚어놓은 허구적 실체다. “종교를 창조한 것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고, 종교를 규정하는 것은 신이 있고 없고의 여부가 아니라 사회적 기능이다”라는 것이다(『호모 데우스』, 252쪽).

유발 하라리의 홈페이지를 찾은 사람은 유발 하라리의 사진과 함께 홈페이지 창에 떠 있는 다음 문장을 제일 먼저 만나게 될 것이다. “인간이 신을 발명할 때 역사는 시작되었고, 인간이 신이 될 때 역사는 끝날 것이다”(History began when humans invented gods, and will end when humans become gods). 하라리에 대한 이런 소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의 관점이 비종교적이고, 비신앙적이고, 비신화적이기에, 『사피엔스』와 『호모 데우스』읽기를 그만 두어야 할까? 아니면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서 『사피엔스』와 『호모 데우스』가 구현하는 인간이해를 배우는 마음으로 유발 하라리를 읽어야 할까? 그것도 아니라면 로널드 드워킨(Ronald Dworkin)이 주창했던 “신이 없는 종교”(Religion without God) 같은³⁾ 이념이나 이상을 유발 하라리가 써 낸 “빅 히스토리”에서 발굴하려는(?) 모험에 나서야 할까?

3) 이 책은 우리말로 『신이 사라진 세상』 (김성훈 역, 블루엘리펀트, 2014년 간행)으로 번역·출간되었다. 드워킨이 주창하는 “신이 없는 종교”란, 한 마디로, 올바르게 살게 하는 윤리를 가리킨다.

3.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 인간 · 생물학적 존재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인간의 원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담”이다(창 1:26; 2:7). 이 아담을 유발 하라리는 생물학자들이 구분한 학명에 따라서 호모(Homo)라고, 호모 사피엔스라고, 고쳐 부른다. 유발 하라리의 인간이해는 철두철미 생물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사람이란 “호모”(유인원) 가운데서도 “사피엔스”(지혜를 뜻하는 라틴어 sapientia에서 온 말) 종(種)으로 분류되는 동물이다. 유발 하라리에게 인류(human)는 유인원 과(科, family), 호모 속(屬, genus), 사피엔스 종(種, species)에 속하는 동물인 것이다(『사피엔스』, 22-23쪽). 그가 사람을 생물의 한 부류로 분류하는 것은 사람의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능력이 생물학의 법칙인 DNA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진화론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닌 것 가운데 인간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것은 유전자이고, 유전자 분지는 ‘영원한 것이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돌연변이의 운반체이다(『호모 데우스』, 152쪽).

하라리는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동물로 분류된다는 사실에 아무런 불만이 없다. 그가 제기하는 질문은 호모로 분류되는 인류 종(種) 가운데 왜 사피엔스 종만이 오늘날까지 살아남았는가에 있다. 지구상에는 약 1만 년 전까지만 해도 오스트랄로피테쿠스(“남쪽의 유인원”)에서 진화한 최소 여섯 종의 호모(원시인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예컨대 유라시아 서부지역에서는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동아시아에서는 호모 에렉투스, 인도네시아 자바 섬에서는 호모 솔로엔시스,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에서는 호모 플로레스시엔시스, 동아프리카에서는 호모 루돌펜시스나 호모 사피엔스 등. 그런데 유독 호모 사피엔스 종(種)만이 살아남아서 지구라는 행성의 연대기에서 그 먹이사슬의 최상층부로 올라가는 위업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유발 하라리에게 역사는 호모 사피엔스가 세상을 지배하는 과정이다.

역사이전에 있었던 모든 인간 종(種)의 행위는 생물학 영역에 속한다(『사피엔스』, 66쪽). 유발 하라리에 따르면 인류의 자취가 생물학에서 역사로 전이된 계기는 호모 사피엔스가 주도했던 세 가지 혁명에 기인한다.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

하라리가 지적하는 인지혁명이란 약 7만 년 전 출현했던 사피엔스가 보여주었던 새로운 사고방식과 의사소통 방식이다(『사피엔스』, 18-118쪽). 다른 유인원 종이나 동물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대단위로 협동하는 능력을 사피엔스가 갖추었다는 것이다. 대 단위의 무리가 질서 있게, 유연하게 협동해서 사냥을 성공으로 이끄는 정보전달 능력이 있었기에 사피엔스가 역사의 주도권을 쥌 수 있었다는 것이다. 무엇이 사피엔스에게 이런 능력을 가지게 했을까? 정확히는 모른다. 다만 하라리는 이런 능력이 “사피엔스의 뇌의 내부 배선에서 일어난 유전자 돌연변이”로, 이를 테면 “지식의 나무 돌연변이”(『사피엔스』, 42, 44쪽)로 생겨났다고 추정한다. “지식의 나무”의 돌연변이 덕분에 사피엔스에게 “상호주관적 의미망”(『호모 데우스』, 212쪽)이 갖추어졌고, 그래서 전혀 새로운 유형의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서 지구촌을 장악하는 대장정에 나설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인지혁명이 역사의 시작이었다면 농업혁명은 그 역사의 흐름을 가속화시켰다. 약 12,000 년 전에 발생한 농업혁명은 인간의 생존 방식을 수렵채취의 방식에서 식물과 가축을 길들여서 원하는 대로 경작하고 조작하며 살아가는 방식으로 바꾸어 놓았다. 오늘날 지구촌이 소비하는 식량의 90퍼센트가 여전히 그 때 있었던 농업혁명에서 길들여졌었던 가축과 농작물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부업의 구조가 그 때나 지금이나 본질적으로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생존방식만 바꾸어 놓은 것이 아니다. 문화와 사회구조를 새롭게 했다. “쓰기”라는 “정보처리(숫자, 개수, 수학적 자료, 문자) 시스템”(『사피엔스』, 183쪽)을 발명해서 마치 알고리즘을 짜듯 사회적 소통을 가능케 하는 체계를 이루었고(『호모 데우스』, 224쪽), 돈(화폐)과 국가(제국)라는 가상의 실체를

조직해서 농업혁명으로 파생되거나 쪼개진 사회계층이나 다양한 민족, 생태 지역 등을 통합시켰다는 것이다(『사피엔스』, 270-296쪽). 그 토대 위에 신을 숭배하는 종교적 환경을 조성시켜 놓음으로 사피엔스 왕국이 형성될 수 있었다. 사피엔스에게는 돈, 제국과 더불어“종교의 법칙”(『사피엔스』, 301쪽)이라는 “상상의 질서”를 믿는 독특한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다(『사피엔스』, 297-347쪽). 그 가운데서도 사피엔스의 능력이 총체적으로 그 위력을 발휘한 사회구조의 기반은 돈이다.

철학자와 사상가와 예언자는 수천 년에 걸쳐 돈을 홍보면서 돈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매도했다.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한 편 돈은 인류가 지닌 관용성의 정점이다. 돈은 언어나 국적, 문화코드, 종교 신앙, 사회적 관습보다 더욱 마음이 열려 있다. 인간이 창조한 신뢰 시스템 중 유일하게 거의 모든 문화적 간극을 메울 수 있다. 종교나 사회적 성별, 인종, 연령, 성적 지향을 근거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유일한 신뢰 시스템이기도 하다(『사피엔스』, 266쪽).

사피엔스의 역사에서 변곡점은 약 500년 전에 일어났던 과학혁명이다(『사피엔스』, 350-586쪽). 앎을 향한 노력이다. 지식의 근거를 성령이 아닌 탐구·탐험에서 찾았다. 15-16세기 이래 유럽의 제국들은 새 영토만이 아니라 새 지식을 획득한다는 희망을 안고서 먼 곳으로 떠나는 대 항해에 나섰다(『사피엔스』, 402-494쪽). 탐구·탐험에는 돈(투자)이 있어야 했다. 새 지식의 탐구를 위해서는 제국이 후원해야 했다. 과학진흥이 제국과, 돈의 제국(자본주의)과 결합하게 된 것이다(『사피엔스』, 494쪽). 거기에서 과학혁명은, 유신론적 종교를 일으켰던 농업혁명과는 달리, 신을 인간으로 대체한 인본주의 종교를 탄생시키는 쪽으로 뻗어 나간다(『호모 데우스』, 142쪽).

인본주의는 신이나 자연법이 맡았던 자리를 인간에게 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인간의 내적 경험이 인생의 의미나 우주 전체의 의미를 이끌어낸다고 보았던 것이다(『호모 데우스』, 307쪽). 의미와 권위의 원천이 하늘이나 성경에서 인간의 감정으로 옮겨 오면서부터 우주의 성분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신의 섭리가 아닌 인간의 지식이, 성경말씀이 아닌 인간의 경험이, 우주를 해설하는 수학적 도구로 변신한 것이다. 그렇게 시작된 과학혁명이 250년 전에는 산업혁명으로, 50년 전에는 정보혁명으로, 오늘날에는 생명공학 혁명으로 이어지면서 급기야 “길가메시 프로젝트”(『사피엔스』383-394, 580-592쪽)라는 생명공학적 신인류를 탄생시키는 단계에까지 다다랐다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인간의 성능을 높이는 기술”(『호모 데우스』, 71쪽)이 사피엔스의 역사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 하라리가 말하는 “인간의 성능을 높이는 기술”이란, 예컨대, 유기체(인간)를 비유기적 장치(생체공학적 손, 발, 눈, 장 등)들과 융합하는 사이보그를 가리킨다.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사피엔스는 몰락하고 그 자리에 신이 된 동물(호모 데우스)이 들어서게 된다는 것이다!(『사피엔스』, 587-588쪽).

주목할 것은 유발 하라리가 재구성한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으로 이어지는 인류사의 패러다임이 놀랍게도 창세기 1-11장이 개진한 인류 생존의 역사를 떠올리게 한다는 점이다. 하라리가 그렇다고 드러내놓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하라리의 『사피엔스』는 창세기 1-11장이 증언한 원(原)역사에 대한 21세기 판(版) 미드라쉬일 수 있다. 하라리가 표면적으로는 반종교적인 스탠스를 취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역설적으로, ‘히브리어 성서로 과학하기’같은 충동(?)이 꿈틀거렸다고 볼 수 있지 아닐까?

예컨대 하라리가 “지식의 나무의 돌연변이”라고 불렀던 사피엔스의 인지 혁명이란 창세기 3장에 소개된 인류 역사의 시작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인류사의 자취가 농업혁명에서 그 획기적 전환을 이루었다는 것도 에덴동산(이 곳에서 아담·하와의 생존은 수렵문화이었다)에서 에덴동산 밖 동쪽으로 쫓겨난 아담이 생존을 위해서 헤쳐가야 했던 수단이 농업(창 3:17-19)이었다는 성서적 사유를 닮았다. 그가 지적한 과학혁명도, 따지고 보면, 에덴의 동쪽 못 땅에서 바벨에 이르기까지 가인의 후손이 이루었던 도시·문화·문명·예술·기술·폭력의 자취를 떠올리게 한다. 오늘날의 과학이 생명공학

의 지평에서 인류생존의 한계를 깨뜨리려고 시도하는 “길가메시 프로젝트”도, 길가메시 서사시에 대한 창세기의 비평(창 7-9장)을 다시 한 번 뒤집어보려는 21세기 버전(version)이다. 유발 하라리가 전하는 호모 데우스의 호언장담(?)에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창 3:5a)나,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은 내자”고 선동하였던(창 11:4) 시날 땅의 아우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4. 생물학적 호모 사피엔스에서 생명공학적인 호모 데우스(Homo deus)로

유발 하라리의 『호모 데우스』는 『사피엔스』에서 미처 다하지 못하고 끝냈던 호모 사피엔스의 미래를 보충하는 담론이다. 생물학적 존재이던 호모 사피엔스가 생명공학적으로 설계된(!) 호모 데우스로 대체되는 조감도를 본격적으로 그리고 있다. 이 조감도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응답 형식을 띤다. 사피엔스가 신이 되는 자리에 들어선다면 세계는 어떤 변화를 겪을까? 생명공학과 인공지능 등이 인류의 모습을 반인반신(半人半神)의 사이보그로 업그레이드시킨다면, 인본주의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인간의 정체성은 어떻게 규정될 것인가? 호모 데우스가 자리 잡을 신세계에서 인간의 효용성(?)은 어떤 것인가?

『사피엔스』에서 유발 하라리는 인간을 동물의 과(科), 속(屬), 종(種) 등으로 분류되는 체계에 따라 정의하였다. 그러나 그런 분류는 어디까지나 과학혁명을 겪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작업이다. 과학혁명 이후부터 사람은, 사람의 생명은, 알고리즘으로 파악된다(『호모 데우스』 121-131쪽).

유기체는 알고리즘이다. 사람이라고 해서 알고리즘에서 예외일 수 없다. 알고리즘이란 “계산을 하고 문제를 풀고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군의 방법론적 단계들이다”(『호모 데우스』, 122쪽). 여기에 유발 하라리가

외치는 호도 테우스의 정체가 드러난다. 유발 하라리에게 신성은 전지전능한 형이상학적 성질이 아니다. 그가 말하는 신성이란 지금까지 사피엔스가 적용해왔던 지구생태계의 방식인 “자연선택을 지적설계로 대체하고, 생명을 유기적 영역에서 비유기적 영역으로 확장하는”(『호모 테우스』, 109쪽) 능력이다. 쉽게 말해 전지전능한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특정한 분야나 자질 등에서 신으로 등극한 고대 그리스의 신들과도 같다.

하라리가 안내하는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테우스로 나아가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길은 호모 사피엔스가 여태껏 풀지 못했던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된다. 과학혁명이 지금까지는 굶주림, 질병, 폭력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일에 기여했다면, 이제부터는 노화와 죽음을 극복하는 대장정에 나선다는 것이다.

사람들을 극도의 비참함에서 구한 다음에 할 일은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짐승 수준의 생존투쟁에서 인류를 건져 올린 다음 할 일은 인류를 신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호모 사피엔스’를 ‘호모 테우스’로 바꾸는 것이다(『호모 테우스』, 19쪽).

21세기 인류의 세 번째 큰 과제는 신처럼 창조하고 파괴하는 힘을 획득해 호모 사피엔스를 호모 테우스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재설계하는 능력을 갖추려는 것은 무엇보다 노화, 죽음, 비극을 피하기 위해서이지만, 그런 능력을 가졌을 때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밖에 무슨 일을 할지 누가 아는가? 그러므로 인류의 새로운 의제를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는 편이 낫다. 그것은 바로 신성(divinity)을 획득하는 일이다(『호모 테우스』, 74쪽).

하라리가 안내하는 호모 테우스로 나아가는 길은 사피엔스가 지금까지 이룩한 과학기술적 성취를 디딤돌 삼아서 사피엔스의 영원한 난제(노화와 죽음)를 해결하는 역사적 진보(?)에 들어서는 길이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하라리의 고민이 시작된다. 과학기술이 더욱 발전해서 상호주관적인 실재

가 아닌 객관적인 과학 지식이 선도하는 신세계가 구현된다면, 그 시대에서도, “집단신화를 믿는 능력과 상호간의 협력”에 바탕을 두었던 호모 사피엔스의 신화가 이어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독자의 몫이다. 하라리는 21세기에 구현될 신세계가 희망적인 것인지, 아니면 비참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독자의 판단에 맡긴다. 그러면서도 호모 데우스가 주도하는 사회가 도래하면, 이를 테면, 인공지능 로봇 같은 비의식적 알고리즘이 사람들이 했던 역할을 떠맡는 사회가 구현된다면, 남아도는 잉여인간(!)은 어떻게 처리(?) 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한다.

“기계가 사람의 역할을 빼앗는다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은 이전에도 있었다.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에도 사람들은 기계화가 대량실업을 초래할까봐 두려워했었다. 그러나 그 때에는 그런 사태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었다. 옛 직업이 사라진 자리에 새 직업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기계로는 이를 수 없었던, 아니 기계가 감당할 수 없었던 능력이 사람에게에는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의 인지능력이 그것이다. 사람의 인지능력은 그 어떤 기계로도 대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21세기에 와서는 사정이 크게 달라진다. 이제는 비유기적(비의식적) 알고리즘인 컴퓨터(인공지능)가 유기적 알고리즘(사람)의 인지능력마저도 완벽하게, 더 뛰어나게, 수행하는 시대에 들어선 것이다. 호모 사피엔스의 인지능력이 필요하지 않는 세상이 도래한다는 것이다(『호모 데우스』, 386-544쪽).

호모 데우스로 대변되는 신세계에 대한 경고는 또 다른 지평에서도 들린다. 예컨대 21세기 신 과학기술에 따라서 미래의 사람들이 그 몸에 수많은 생체기기, 바이오닉 장기, 나노로봇 등을 장착하고 산다면, 그런 비유기적 장치들을 통해서 유기체의 건강을 관리하며 감염이나 질병 또는 부상을 막으면서 영원히 산다면, 인간에게는, 좀 더 꼭 집어 말하자면 인간의 장기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온라인 상태여야 한다!”(『호모 데우스』, 472쪽).

사이보그 인간은 하루 종일, 일 년 내내, 평생 동안 온라인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무슨 소리인가? 호모 사피엔스가 구현해 놓았던 인본주의의 가치나 인권, 인간됨의 가치가 소멸되고 만다는 것이다. 인본주의가 소멸된 자리에 비인간적이고도 비인격적인 알고리즘의 권한이 강화되는 세상이 도래한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유발 하라리가 경고에 나서게 된다. “이렇게 생물학과 컴퓨터 과학이 결합하고, 유기물과 무기물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고, 컴퓨터의 인공지능이 순수한 기계적 사건에서 생물학적 격변으로 바뀌며, 삶의 권한이 개인에게서 네트워크로 연결된 알고리즘으로 이동”한다면, 그 결과는 “조지 오웰이 상상한 경찰국가로 돌아올” 것이라는 지적이다(『호모 테우스』, 473쪽).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과 정부는 개인으로서의 내 존재를 존중하고, 나의 특별한 필요와 소망에 맞춤형된 의학, 교육,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기업과 정부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생화학적 하부 시스템들로 분해해 그 하부 시스템들을 어디에나 존재하는 센서들로 감시하고, 그 작동기제를 강력한 알고리즘을 이용해 해독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개인은 종교적 판타지에 불과 하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다. 실재하는 세계는 생화학적 알고리즘들과 전자 알고리즘들이 뚜렷한 경계도 없고 각각의 허브도 없이 그물망처럼 얽힌 상태임이 드러날 것이다(『호모 테우스』, 473-472쪽).

유발 하라리의 경고는 크게 셋으로 요약된다. 하나는 인간의 가치가 사라진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이 외부 알고리즘이 제어하는 위치에 놓이게 됨으로써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취급된다는 것이며, 나머지 하나는 인간의 유기체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과정에서 일부는 “해독 불가능한 존재”(『호모 테우스』, 474쪽)로 남거나, 아니면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담당·관리하는 전대미문의 능력과 권한을 휘두르는 초인간들로 부상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때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컴퓨터 알고리즘이나 새롭게 부상한 초인간, 양쪽의 지배를 받는 열등한 계급으로 전락되고야 말 것이다. 불멸, 행복, 신성을 얻고자 했던 21세기 길가메쉬 프로젝트가 그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사피엔스를 억압하는 초인간 계급을 출현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런 초인간이 출현한다면, 그는 인간을, 사피엔스를, 어떻게 대할까? 그는 아마도 19세기 유럽인들이 아프리카인들을 대했던 것처럼 사피엔스를 취급하게 될 것이다(『호모 데우스』, 479쪽).

5. 호모 데우스의 형상, 호모 렐리기오수스(Homo religiosus)

유발 하라리의 『호모 데우스』는 호모 데우스의 정체성을 묻고 대답하는 결론으로 치닫는다. 그런데 유발 하라리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신이 되는 자리에 들어서는 호모의 모습이 자못 종교적인 것을 보게 된다. 그 형상이 호모 렐리기오수스(종교적 존재)를 닮았다는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유발 하라리는 종교를 진리의 차원이 아닌 사회적 기능의 관점에서 이해한다. 이 경우 종교와 과학은 서로 대척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서로 공존하는 길을 걷는다. 종교가 사회를 유지하는 질서에 관심을 둔다면, 과학은 사회를 지키는 힘에 관심을 둔다. 종교와 과학은 서로 “잘 어울리는 짝”(『호모 데우스』, 275쪽)이다. 둘은 “시종일관 이슬이슬한 탕고를 춘다”(『호모 데우스』, 372쪽). 둘은 서로를 밀어주고 서로에게 의존하면서, 서로에게서 멀리 벗어날 수 없다. 종교는 과학기술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정해주고, 과학기술은 종교적 비전의 범위와 한계를 정해준다.

유발 하라리가 지구환경의 파괴 같은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지구 온난화, 해수면 상승, 광범위한 오염 같은 생태적 혼란이 호모 사피엔스의 생존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우려에 그도 동조한다(『사피엔스』, 495쪽). 그렇지만 하라리는 기후변화 등이 초래할 자연의 재앙을 자연 파괴가 아니라 “자연의 변형”이라는 차원에서 수렴한다(『사피엔스』, 497쪽). 그러면서 그가 묻고 대답하는 논의를 자연의 변형이 아니라 사피엔스의 변형에 둔다.

호모 사피엔스는 스스로 한계를 초월하는 중이다. 이제 호모 사피엔스는 자연선택의 법칙을 깨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지적설계의 법칙으로 대체하고 있다(『사피엔스』, 561쪽).

자연선택의 법칙이란 진화론의 이론, 즉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던 과정이다. 지적설계의 법칙은 생물의 생성과 변형에 대한 기존 진화론의 설명을 거부하는, 말하자면, 창조론에 준하는 이론이다. 생명공학, 사이보그공학(인조인간 만들기), 비유기물공학 등이 사피엔스를 신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은 진화가 아니라 지적설계의 공정이다. 지구의 역사에서 지난 40억 년이 자연선택의 기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지적설계가 지배하고 주도하는 새 시대가 우주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유발 하라리에 따르면 21세기에 대두될 신흥종교는 “실험실에서”(『호모 데우스』, 481쪽) 탄생한다. 그 신흥종교는 크게 두 유형이다. 하나는 “기술 인본주의”고(『호모 데우스』, 481-502쪽), 다른 하나는 “데이터교”(데이터 만능주의, 데이터 종교)다(『호모 데우스』, 503-544). 이 때 기술 인본주의나 진화론적 인본주의는 유전공학, 나노기술,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작업 등을 인본주의적으로 이끈다. 인간을 여전히 창조의 정점으로 보는 전통적 인본주의의 가치들을 재현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기술 인본주의는 인간을 여전히 창조의 정점으로 보고, 전통적인 인본주의의 여러 가치들을 고수한다. 기술 인본주의는 우리가 이는 형태의 호모 사피엔스는 역사의 행로를 완주했으며 미래에는 할 일이 없다는데 동의하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술을 이용해 호모 데우스(훨씬 우수한 인간 모델)를 창조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호모 데우스』, 482쪽)

기술 인본주의가 설계한 호모 데우스는 인간의 본질적인 특징들을 그대로 보유한다. 생명공학의 도움을 받아 육체적, 정신적으로 업그레이드된 능력을 갖추었지만, 그 알고리즘이 인본주의로 설계된 덕분에, “매우 정교한

비의식적 알고리즘들 앞에서도” 당당히 인간이라는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데이터교다. 유발 하라리에 따르면 데이터교라는 신흥종교는 신도, 인간도, 우러러보지 않는다. 이 종교는 오로지 데이터, 정보만을 숭배한다.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한 이래 생물학, 생명과학은 유기체를 생화학적 알고리즘으로 보았다. 데이터교가 전제하는 것은 생명과학의 생화학적 알고리즘이나 컴퓨터과학의 전자 알고리즘에는 모두 똑같은 수학적 법칙들이 작용한다는 사실이다(『호모 데우스』, 503쪽). 그래서 결국에는 동물과 기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생화학적 알고리즘이 전자 알고리즘으로 해독되고, 전자 알고리즘으로 생화학적 알고리즘이 대체되는 시스템을 낳게 된다는 것이다.

데이터교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라는 종은 단일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고 개인은 시스템을 이루는 칩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역사 전체를 이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호모 데우스』, 517쪽)

인류가 실제로 단일한 데이터처리 시스템이라면 그 산물은 무엇일까? 데이터교도들은 “만물인터넷”(Internet-of-All- Things)이라 불리는 새롭고 훨씬 더 효율적인 데이터처리 시스템을 그 산물로 본다(『호모 데우스』, 521쪽). 인간이 만물인터넷을 창조하는 도구가 되고 나면 우주적 규모의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 신처럼, 모든 것을 통제하게 될 것이기에, 인간은 그 데이터처리시스템 안으로 흡수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다. 과거에 인본주의자들이 “신은 인간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주장했었다면, 이제부터 데이터교는 그 인본주의자들에게 이렇게 외칠 것이다. “인간의 상상력은 생화학적 알고리즘의 산물이다”(『호모 데우스』, 534쪽). 인본주의가 신 중심적 세계관을 인간 중심적 세계관으로 밀어냈다면, 21세기 데이터교는 인간중심적 세계관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데이터 중심적 세계관을 세울 것이다.

여기에 하라리가 던지는 마지막 질문이 제기된다. 그렇다면 생명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사람의 생명이란 과연 무엇인가? 사람이란 유기체의 일종이고, 유기체는 단지 알고리즘이라면, 생명은 단순히 데이터 처리 과정에 불과한 것인가?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이 주도하는 신세계가 주도하는 대로 역사가 진화한다면, 오늘의 호모 사피엔스는 어떤 자세로 내일을 준비해야 하는가? 생명공학적으로 더 우수한(?) 인간이 출현한다면, 그런 인간(호모 테우스)의 일상이 오늘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라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한다.

인간은 새로운 힘을 얻는 데는 극단적으로 유능하지만 이 같은 힘을 더 큰 행복으로 전환하는 데는 매우 미숙하다. 우리가 전보다 훨씬 더 큰 힘을 지녔는데도 더 행복해지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사피엔스』, 592-593쪽).

유발 하라리가 『호모 테우스』를 S. N. 고엔카(Goenka, 1924-2013)에게 헌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視事)하는 바가 크다. 고엔카는 인도령이었던 버마에서 출생한 인도인으로 위빠사나 명상(Vipassana Meditation)운동을 일으켰던 자다. 하라리는 『호모 테우스』의 첫 지면에서 고엔카를 가리켜 “중요한 것들에 대해 애정 어린 가르침을 주신 스승”이라고 부른다. 2017년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발 하라리는 자신은 지금도 하루 2 시간, 1년에 두 달 가까이씩는 책 읽기나 글쓰기를 비롯한 모든 것을 끊은 채 자신만의 호흡에 집중하는 “견고한 고독”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⁴⁾

과제는 다시 마음으로 되돌아간다. “상호주관적인 실재들,” 이를 테면 종교, 법, 인권 같은 “상상의 질서”를 창조하는 능력은, 여태껏 사피엔스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의미의 그물망”(『호모 테우스』, 203쪽)이었다. 이 의미의 그물망을 짜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는 행동은 “인간을 다른 동물들에게서 분리할 뿐 아니라, 인문학을 생명과학에서 분리하는”(『호모

4) 조선일보인터뷰 2017. 3. 21(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21/2017032100223.html).

데우스』, 213-214쪽) 초석이 되었다. 인류에게 희망이 있다면 바로 이 초석을 다시, 바르게, 세우는 것이다. 내일을 향한 오늘의 처방은 바로 마음먹기라는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들이 유전암호와 전자암호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상호주관적 실재가 객관적 실재를 삼키고 생물학은 역사와 융합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21세기에 허구는 소행성과 자연선택을 훨씬 능가하는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래를 이해하고 싶다면, 계몽을 해독하고 통계수치를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는 허구들도 해독해야 한다(『호모 데우스』, 115-116쪽).

유발 하라리는 역사학과 생물학을 융합하는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그의 속내는 과학자가 아니라 역사학자다. 인류의 장래를 생명공학이나 과학기술에서가 아니라 역사학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그에게 역사는 사람이 써 가는 자취다. 그에게 있어서 미래 역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체는 과학기술이 아니라 사피엔스라는 인류의 마음이다. 인류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인류의 내일이 관가름 난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있을까? 그가 수행하는 위빳사나 명상이 그런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유발 하라리의 책을 덮으면서 창세기의 증언이 원(原)역사로 그치지 않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 인류사의 구원은 원역사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초록>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와 『호모 데우스』에 반영된 인간이해에 대한 해석학적 진단- 호모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 호모 렐리기오수스”

왕대일

(감리교신학대학교)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와 『호모 데우스』는 진화론의 입장에서 인류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되돌아보고, 진단하고, 조망하면서, 생물학적 존재인 호모 사피엔스가 생명공학적인 존재인 호모 데우스로 대체되는 과정을 예고하는 글이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는 자연선택의 법칙이라는 진화론을 따라서 사피엔스의 생존과 성공을 풀이한다. 『사피엔스』가 인류사의 자취를 “지식의 나무”의 돌연변이가 낳은 인지혁명에서 시작해서 농업혁명과 과학혁명으로 치닫는 진화의 단계로 설명하지만, 해석학적으로 보면 그것은 창세기 원역사의 패러다임을 닮았다. 하라리에 따르면 약 7만 년 전에 일어났던 인지혁명은 1만 2천 년 전에 있었던 농업혁명을 거치면서 돈, 제국, 종교라는 허구적 실체를 조성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류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세상을 구축하였다. 그랬던 사피엔스가 500 년 전부터 시작된 과학혁명을 거친 뒤 오늘날에 와서는 인간의 생명을 생물학의 DNA가 아닌 자연과학의 알고리즘으로 해독하고 유기체(인간)와 비유기체가 결합하는 사이보그 탄생을 비롯한 인간업그레이드를 이루는 시대에 들어서게 된다. 호모 데우스라 불리는 전혀 새로운 종(種)이 출현하게 된다는 것이다.

유발 하라리의 『호모 데우스』는 여기에서 진화론의 자연선택의 법칙을

따라 생존하던 시대가 끝나고, 진화론의 법칙이 아닌 지적설계의 법칙에 따라 성취되는 신세계를 조망한다. 그 신세계는 극단적으로는 “데이터교”라고 불리는 인공지능정보처리시스템이 주도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런 세상이 오면 인간 개인은 하나의 칩으로, 인류는 인간과 인간이 온 라인으로 연결된 시스템으로 간주되고, 사피엔스 시대에 누렸던 인본주의적 정체성을 잃게 되고야 말 것이다. 여기에서 유발 하라리는 호모 데우스의 세상이 도래 하더라도 인간이 여전히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행복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묻는 질문으로 그의 글을 마친다.

유발 하라리의 글은 표면적으로는 반(反)종교적, 인본주의적, 생물학적, 생명공학적 인간이해를 펼친다. 그러나 그의 논리를 따라서 『사피엔스』와 『호모 데우스』를 읽어가다 보면 호모 사피엔스가 호모 데우스로 치닫다가 도리어 또 다른 차원의 호모 텔리기오수스에 들어서는 기막힌(!) 역전 현상을 목도하게 된다. 『호모 데우스』에서 조망하는 신세계가 “데이터교”라고 불리는 낯선 신세계이기 때문이다.

